

초록번호 10-5

제 목	국 문	일부 농촌 지역의 C형 간염 유병률		
	영 문	Prevalence of Hepatitis C Virus infection in endemic a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신해림 ¹ , 이부옥 ² 1. 동아의대 예방의학교실, 2. 경남 함안의료원		
	영 문	HR Shin ¹ , BO Rhee ² 1.Dept of Prev Med, Dong-A Univ. 2.Haman Health Center		
분 야	역 학	발 표 자	신해림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1993년 역학조사에서 C형 간염 유병률이 높았던 한 농촌지역 (한 개의 면지역이었음)에서 C형 간염 유병률을 재조사하기 위하여 한 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p> <p>2. 연구 방법</p> <p>199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 개 군 지역에서 40세 이상의 성인 중 본 연구에 참여한 94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령, 성, 기호습관, 병력사항 등 생활습관에 관한 설문내용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이 연구를 위하여 특별히 훈련한 면접조사 요원으로 하여금 개인면담을 하게 하였다. 대상자들 전부 전혈을 10ml 채혈하여 즉시 혈청을 분리하여 -70도의 deep freezer에 보관하였다. 보관된 혈청으로 anti-HCV를 제3세대 EIA (HCD 3.0)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anti-HCV양성자 중에서 cut off value가 1.5이하인 경우는 Radioimmunoassay방법으로 재조사를 하였다. HBsAg (reverse passive hemagglutinin method), anti-HBs (passive hemagglutinin method)도 검사하였다.</p> <p>수집된 모든 자료는 데이터 베이스화 하였으며, C형과 B형 간염의 성별, 연령별 유병률을 구하였다. C형 간염 전파의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진 수혈력과 침을 맞은 과거력 별로 C형 간염의 유병률을 구하였다. anti-HCV양성자를 C형 간염 환자군으로 anti-HCV음성이면서 HBsAg도 음성인자를 대조군으로 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p>				

3. 연구결과

1995년 함안군 40세 이상의 주민은 26,525명 이었으며 (남자 11,151명, 여자 15,374명) 이들 중 본조사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947명 (남자 358명, 여자 589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중 제3세대 HCD 3.0검사에서 anti-HCV양성인 사람은 67명이었으나 cut off value가 1.5미만인 경우 (15명) HCV RIA방법으로 재 검사를 하였을 때 13명이 음성으로 나와 양성률을 계산할 때는 54명만을 분자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anti-HCV양성률은 5.7%였으며, HBsAg 양성률은 3.7%로 anti-HCV양성률이 더 높았다. 남자들의 anti-HCV 양성률은 5.31%, 여자들의 경우 5.9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군별 양성률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청내 SGPT가 46IU이상인 경우를 간기능이 비정상이라고 하였을 때 간기능이 비정상인 경우는 62명 이었으나 이들 중 anti-HCV양성인 사람은 없었다. 침을 맞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anti-HCV양성률이 (6.97%) 과거력이 없는 사람들 (4.5%)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혈력이 있는 사람들의 anti-HCV양성률 (8.57%) 은 수혈력이 없는 사람들의 양성률(5.83%)에 비하여 높았으나 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들 위험요인들의 C형 간염의 비교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음주력, 흡연력, 연령, 성 등을 보정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침을 맞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과거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C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1.88배 (95% CI 1.0-3.58) 높았다.

4. 고찰

본 연구는 간염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진 경남의 한 농촌의 면지역에서 B형과 C형 간염의 유병률을 알기 위하여 1993년도에 혈청역학적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anti-HCV양성률이 6.3% (표준화 anti-HCV양성률 5.1%)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양성률에 비하여 높았던 지역의 전체 군주민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40세 이상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젊은 연령층에서의 양성률을 알 수는 없으나, 이번 조사 결과 또한 anti-HCV 양성률이 5.7% (표준화 anti-HCV양성률 6.47%) 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았다. 이 지역에서 C형 간염의 위험요인을 알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침을 맞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침을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 1.88배 C형 간염에 걸릴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지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알려진 C형 간염의 위험요인인 수혈력보다는 1회용 침을 사용하지 않아서 또는 불결한 침을 사용하여서 C형 간염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93년에 시행되었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